

베이비붐(신노년) 세대의 행복을 위한 기독교상담적 담론

김 미 경*

국문초록

본 연구는 노년기 진입이 본격화된 베이비붐(신노년) 세대의 행복을 위해 기독교상담적 담론 구성이다. 오늘날 대부분 베이비붐 세대가 연로한 노부모의 봉양과 취업난 등으로 독립이 늦은 성인 자녀의 부양, 이로 인해 자신의 긴 노년을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윗세대 노인보다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학력도 높으며 전문적 지식과 생성감을 발휘한 사회 경험으로 중년기를 보낸 집단이지만, 전반적으로 행복(안녕감)을 위협받고 있는 세대로 이들에 대해 기독교 상담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붐세대의 행복과 맞닿아 있는 심리적 측면의 주관적 안녕감과 영적 차원의 영적 안녕감을 살펴본 후, 생성감을 발현하여 자아통합을 형성한 성서 인물을 살펴봄으로써 기독교상담적인 신노년 담론의 기초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 베이비붐 세대의 신노년 담론은 심리적 안녕감 위주로 노년 패러다임의 재편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노인들의 영적 안녕감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적인 노인들에 대해서도 배제의 담론으로 작용되어 왔다. 무엇보다 기독교가 노년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기 위해 그동안 형성되어 온 활동적 노화이론에서 출발하여 성공적 노화, 생산적 노화 개념에 더하여 영적 안녕감을 강화하는 기독교상담적인 담론 구성이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베이비붐세대, 행복, 주관적안녕감, 영적 안녕감, 생성감

* 서울한영대학교 재활상담심리학과 부교수

• 이 논문은 2023년도 서울한영대학교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I. 여는 글

최근 은퇴 연구소인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가 공동으로 대도시에서 사는 만 50~56세(1968~1974년생)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년을 5~10년 남긴 50대 대도시 샐러리맨들이 '소득 절벽'을 앞두고 수많은 암초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연봉이 두둑하고, 내 집 마련에 성공하는 등 현재 살림살이는 대체로 여유가 있었지만 은퇴 준비, 재취업 전망은 매우 어두웠다. 또 부모와 자녀의 '샌드위치 봉양과 부양' 의무에 낀 채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조사대상자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에 해당하는 현재 50~56세로 1차 베이비부머 세대에 비해 노부모의 평균 수명은 늘었고, 자녀의 취업과 출가 시기가 늦어 윗세대의 봉양과 자녀 부양 부담을 떠안으면서 정작 본인들은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첫 세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조선일보, 2023. 9. 4.)고 한다.

현재 2023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8.4%인 950만 명이며 고령인구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6%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여 2035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023 고령자통계). 또한 2023년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549만 1천 가구로 전체가구의 25.1%이며, 가구 유형별로 보면, 1인 가구가 36.3%로 가장 많고, 부부(35.3%), 부부와 미혼자녀(9.2%), 부(모)와 미혼자녀(5.5%)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계속 증가하여 2039년에는 천만 가구를 넘고, 2050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절반(49.8%)으로 전망되고 있다(2023 고령자통계).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진입은 이미 2017년도에 시작되었으며, 머지않아 2025년 쯤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6%에 이르며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통계청, 2022), 실천적 대안마련에 관한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 이후 출생한 집단을 지칭하는데, 이들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은 30~40년이 늘어났지만 노부모의 봉양과 자녀들의 취업난으로 인해 경제적인 독립이 늦어지고 있으며 자신의 노후까지도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3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는 2010년부터 노동현장에서 은퇴하여, 1955년생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 노인 세대로 진입하여 인구 고령화와 경제활동구조 변화라는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높은 학력과 이전 세대와는 다른 문화를 경험한 세대이므로 자아실현 욕구가 높아 은퇴 후에도 사회참여욕구가 높은 세대이다(김정진, 2017). 하지만 저성장 시대에 은퇴와 높은 청년실업으로 자녀부양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낡은 세대이기도 하다.

이처럼 노인 및 예비 노인의 증가는 행복한 노인의 삶에 대한 질문과 이해를 촉구하게 된다. 행복은 건강한 노화의 필수 요소로써, 행복에 기여하는 요인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노년의 행복에 대한 연구들은 인생에 있어 긍정적인 정신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들이 진행되어져 왔으나, 영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들은 아직 부족한 편이다. 실제적으로, 그동안 베이비부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흐름들은 주로 노후 준비나 은퇴와 관련된 삶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그 과정에서 성공적 노화를 이루는 경험적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가하면서, 건강할 발달의 지표인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 발견의 중요성과 함께 심리적 안녕감을 찾아가는 연구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영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들은(홍영준, 이정훈, 2014) 사실상 많이 부족한 편이다.

영적 안녕감이란 영적인 건강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Burkhardt, 1989). 또한 환경, 이웃, 자신과의 관계에서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여 내적 자원이 총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말한다. 연구들에 의하면, 영성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덜 우울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잘 견딜 수 있다(구지현, 서경현, 정성진, 2005). 영적 안녕감은 신체적 노화와 삶의 위기를 믿음으로 해석하는 영적인 힘으로써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다시 말해 노년과 신노년에 대한 연구들은 노년기에도 가능성과 삶의 동기를 주는 원동력을 중심으로 다양한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 특히,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를 어떻게 실행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그러므로 현시대의 급속한 변화에 무능력, 상실로 점철된 계층으로 인식되는 노년의 삶을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기독교 상담적인 담론 구성이 필요한 때이다. 특히 교회의 고령화 속도는 일반사회의 고령화보다 빠르므로 교회에서도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므로 성서적으로 잘 늙어가기(aging well)의 담론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II. 펴는 글

1. 베이비붐(신노년) 세대의 특징

베이비붐 1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출산율이 증가한 1955년에서부터 둔화시점인 1963년까지 9년간 출생한 세대로서 그 이전의 노인 세대와 구분하여 신노년 세대라고 부르며(이금룡, 2016), 베이비붐 2세대는 1964~1974년에 태어난 세대를 지칭한다. 이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삶의 변화를 이끌고 새로운 노년 문화를 만든다. 베이비붐 세대들은 지식 정보화, 산업화를 겪고 적극적인 사회활동으로 다양한 삶을 살며, 정치적, 경제적으로 높은 권한을 행사하며 노년에 유입되고 있는 집단이다(김동배, 2015). 사회활동이나 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베이비부머들을 일반적인 노년세대와 다르게 '신노년 세대'로 부르고 있는 것은, 이들이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미래 지향적인 생활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김동배, 2015). 이들은 1954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의무교육 덕분에 약 70%가 고졸 이상의 고등교육을 마쳤으며, 70~80년대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적극적이며 주체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이윤희, 2023). 이처럼 베이비붐 세대는 절반 이상이 대졸 학력으로 경제 활동 참여에 대한 욕구 및 생활 전반에 걸쳐 자부심이 높아서, 고령 노인 세대보다 퇴직 후에도 사회에 대한 참여 욕구가 더 강한 편이다(박경례, 박재연, 2023). 하지만 현실은 취업 기간은 줄고 수명은 연장되면서 '비취업'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인구 현황을 보면, 2023년 2월 시점에서 60-69세 인구는 전체 인구(51,421,479명)의 14.50%인 7,461,127명으로 나타나고 있다(박경례, 박재연, 2023에서 재인용). 이들은 준비가 미흡한 상태의 퇴직인데다가 길어진 노년기에 비하여 불충분한 자산상태이므로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부정적인 예측이 나타나기도 한다(김옥희, 서연희, 2015). 베이비붐 세대는 노부모를 봉양하고 자녀 양육과 교육을 감당해왔지만 이들의 노년은 가족의 기능과 인식이 변모하여 그들의 성인 자녀로부터 가족 부양을 받기가 어렵다(김경희, 정혜정, 2017).

한편 신노년(new elder generation)은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나 현재 노인세대에 진입하였거나, 혹은 노인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상실, 저하, 의존' 등의 기존 노인 세대의 이미지와는 달리 '활동, 성공, 생산'이라는 새로운 노인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개념이다(이윤희, 2023). 신노년 세대는 온 몸으로 치열한 경쟁 구도에서 성장해 왔으므로 은퇴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도 여전히 높은 의욕을 지

니고 있고 성인자녀에게 그들의 노후를 기대하기 보다는 독립적으로 경제적인 풍요로운 삶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빈 등지 증후군'과 같은 은퇴 후의 삶이 허전함과 쓸쓸함이 아니라 잉여의 시간을 자기 계발의 기회로 삼아 능동적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자 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즉, 신노년 세대의 생성감(generativity)은 중년기 못지않게 중요한 발달과업이며 삶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생성감의 발현을 위해서 Sadler(2000)는 6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젊음과 완숙함을 통합해가는 '중년의 정체성 확립하기', 일뿐만 아니라 여가로서의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일과 여가활동의 조화', 용감하게 현실을 받아들이며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용감한 현실주의와 성숙한 낙관주의의 조화', 자신을 사랑함으로써 타인을 사랑하는 능력이 커지게 되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배려의 조화', 건강한 자기 인식에 도달하여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주도하며 용기 있게 살아가는 '진지한 성찰과 과감한 실행의 조화', 그리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면서도 타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신만의 자유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의 조화' 등이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건강하고 교육 수준이 향상된 활동적인 집단으로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문화 욕구도 높은 집단이지만, 1세대는 거의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였고 2세대도 신노년기에 합류함으로써 소득의 공백기를 경험하게 된다. 이들의 중년기는 자신의 역량을 키우며 경제적인 안정된 생활 기반을 위해 줄달음쳐 왔지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들은 빠른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성장을 거듭해오며 살아온 배경을 바탕으로 이전 세대와는 다른 은퇴 및 고령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활동적 신노년 세대이다. 따라서 현세대의 노인과는 다른 특성과 욕구를 가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화됨에 따라 건강하고 경제력 있는 노인인구의 증가 현상은 사회 전반에 새로운 노년 문화를 창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욕이 있고 건강한 노인 세대가 길어진 노년기를 어떻게 잘 보낼 수 있는가의 문제는 이제 한 개인이나 소수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대를 사는 인류 전체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노년 담론은 '상실과 저하'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노년 담론에 대항하여 '활동과 성취'의 노년의 긍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행복한 삶을 위해 재구성된 것이다 (Minkler & Fadem, 2002; Holstein & Minkler, 2003; 최희경, 2010에서 재인용). 우리나라는 1997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적 참여와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하여, 경제생활의 주체로서의 활력 있고 유능한 노인상이 부각되어 왔다. 즉 독립성과 생산성, 젊음과 의욕적인 활동을 강조하는 신노년 담론이 우리 사회의 지배

적 담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최희경, 2010).

성공적 노화의 개념은 시대 및 사회적 맥락, 그리고 학자들의 연구관점에 따라 다양하다(이창수 외, 2013; 지혜은, 박경숙, 2018; 홍현방, 최혜경, 2003).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는 일반적 노화(normal aging)와 달리 개인의 노력과 환경에 대한 적절한 성장·유지·상실 등을 보완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신체적·심리적·환경적·사회적으로 잘 적응하는 자기 조절적 노화를 말한다(공경배, 모선희, 2023). 성공적 노화의 패러다임은 노화에 따른 상실, 쇠퇴 등과 같은 부정적 관점에서 벗어나 성인이 이후의 성장과 발달, 획득, 유지, 생성과 노년기의 잠재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노인과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방향성과 초점을 두고 있다. 성공적 노화의 국내 연구는 초기에는 주로 성공적 노화의 개념과 정의를 위한 연구(홍현방, 최혜경, 2003), 구성요인 탐색(김경호, 김지훈, 2009; 정영진 외, 2014) 등의 기초연구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 개발(김동배, 2008; 김미혜, 신경림, 2005; 이경원, 2021; 전은희, 주용국, 2014) 연구들과 성, 지역, 연령, 국가 등 집단비교연구(정순돌, 2007; 지혜은, 박경숙, 2018)가 진행되었다. 최근에 와서 성공적 노화에 관해 실천적 적용을 위한 연구가 교육, 심리, 간호, 행정, 상담, 복지 등 각 분야에서 진행되었는데, 이는 성공적 노화의 모델과 전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성혜영, 조희선, 2006; 전병주, 한혜숙, 2019). 성공적 노화에 관한 실천 연구의 결과는 노인 기관 및 노인 시설 등 노인 서비스 현장에서 성공적 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적용되고 있다. 그 외 노인의 삶의 만족과 노인 불안, 우울 등 성공적 노화 요인에 관한 연구(김희경, 2012; 신학진, 전상남, 2009; 한송이, 윤순녕, 2015; 한창복, 2019)로 노인층이나 성인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많은 편이다.

신노년 담론은 기존의 상실과 저하의 의존적인 노년상에 대항하여 노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재구성된 담론으로 활동적 노화이론에서 출발하여 성공적 노화, 생산적 노화 개념으로 변화, 발전하였다(최희경, 2010). 그러나 신노년 담론은 성공과 동일시하는 자칫 편협성의 문제를 지닐 우려가 있다. 활동적 노화와 성공적 노화 담론이 사회적 주류 담론으로 자리 잡게 되면 노년기만의 특수성과 경험에 의미를 두기 보다는 '중년의 연장'으로서의 노년을 강조할 수 있게 된다(정경희, 윤지은, 2010; Holstein & Minkler, 2003).

베이비붐 세대는 자신에게 내재된 자본인 학력과 독립적인 삶의 계획으로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려하는 독립적인 의식을 지니고 있다(박미려, 박미석, 2016). 또

한 이들은 비교적 안정적 자산을 구축하였으며, 성취 경험으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 도전의식 등 이전의 세대와는 다른 자기상과 욕구를 지니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세대를 지칭해 ‘뉴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등으로 부르기도 하므로 본고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와 신노년 세대를 호환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2. 베이비붐 세대와 행복

행복을 정의함에 있어 주로 언급되는 Diener(1994)에 따르면, 행복이란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과 일상적인 경험에서 다가오는 긍정적인 정서, 개인의 욕구가 충족된 포괄적인 심리 상태로 정의한다. Sharmila(2020)도 행복을 건강한 신체적 및 심리적 상태와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감소로 더 높은 삶의 질, 나아가 삶의 만족과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동안 행복과 관련된 중요 변인으로서 심리적 안녕감이 은퇴를 앞둔 중년기 발달 단계에서 자주 거론되어 왔다. 심리적 안녕감은 Ryff(1989)에 의해 제안된 개념으로 개인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삶의 질이 높은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가가 높은 삶의 질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행복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주관적 안녕감 또는 주관적 행복감, 생활만족도, 삶의 질 등의 용어와 혼용된 심리적인 기능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궁극적인 영적 안녕감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행복을 위한 주관적 안녕감과 영적 안녕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주관적 안녕감

2022년도에 65세 이상 자신의 현재 삶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주관적 안녕감)의 비중은 34.3%로 전년 대비 9.3%p 증가하였으나 고령자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보다 낮은 수준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2023 고령자통계). Diener(1984)는 행복에 대한 이해로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이라는 개념을 이끌었는데, 현재 상태를 넘어서 생애라는 시간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whole life satisfaction)으로 보았다(변미리 외, 2017). 이처럼 Diener(1984)는 행복이라는 경험에 내포된 주관성을 강조하였으며, 행복의 구성요소로 인지적 삶의 만족감, 빈번한 긍정적 정서, 낮은 빈도의 부정적 정서를 제시하였다(문정화 외, 2023; 이계윤, 송현중, 2013). 삶의 만족은 인지적 판

단으로써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가이며, 정서는 삶에 대한 개인의 느낌으로 긍정적 정서는 행복이나 기쁨 등의 유쾌한 정서에 대한 빈도와 강도를 의미하고, 부정적 정서는 슬픔과 근심 등의 불쾌한 정서에 대한 빈도와 강도를 의미한다.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주관적, 심리적 웰빙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는 행복의 보다 구체화된 경험적 측정이다(문정화 외, 2023).

Diener와 Suh(2000)는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문화적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Kitayama와 Park(2007)도 문화에 따라 자기에 대한 시각이 다르므로 문화는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행복의 차이는 동, 서양인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미국인들은 행복의 긍정적인 경험을 개인의 성취와 연결시키고, 일본인들은 사회적 조화와 연결시켰다. Suh 등(2018)도 행복의 문화차이 현상은 사회적 인정과 관련되어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행복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서양인은 자아의 내면 상태가 결정적이라면, 동아시아인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평가하는지를 중요하게 여긴다(박영신 외, 2021). 이러한 주장과 일치하여, 동아시아인들과 집단주의 문화의 구성원은 유럽계 미국인보다 자신에 대해 3인칭 관점을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hen & Gunz, 2002).

노년기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로 제시되는 것은 '사회적 관계'로서, 관계에서의 소외가 노년기 안녕감(행복)을 저해하는 가장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장숙희 외, 2008).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가족 관계, 친구 관계, 나아가 이웃 관계에 걸쳐있으며 누구와의 관계인지, 또 관계의 질은 어떠한지에 따라 안녕감의 정도에 차이를 가져온다(한경혜, 최희진, 2018).

2) 영적 안녕감

기독교 영적 안녕감은 창조주와 구속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인격적 하나님과 정감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이며(롬 12:1), 세상에 속하지 않은 초월적 영성을 지님으로 하나님의 일(성령의 사역)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전 2:14-15). 다시 말해 영적 안녕감은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의 동력으로 현실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개인의 영적인 내적 자원을 의미한다(김정희, 2003). Fish와 Shelly(1983)도 영적 안녕감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여 전인격인 온전함을 성취해 가는 것이라고 하였다(윤매옥, 2009). Ellison(1983)은 영적 안녕감은 영적 깊이와 넓이를 증진시켜서(Chandler, Holden, & Kolander, 1992) 영성의 범주를 확장시키

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영적 안녕감이란 영적 본성을 개발시킬 능력으로 절대자 하나님과 자신, 이웃, 환경과의 관계에서 조화된 삶의 내적 차원의 총체적인 건강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적 안녕감에 대해 주로 인용되고 있는 Paloutzian과 Ellison(1982)의 정의에 따르면, 영적 안녕감(spiritual well-being)은 삶의 만족감과 관련된 수평적 차원의 실존적 영적 안녕감(existential spiritual well-being)과 신과 의미있는 관계인 수직적 차원의 종교적 영적 안녕감(religious spiritual well-being)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실존적 영적 안녕감은 종교성보다는 삶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는지, 앞날에 대해 안정감이 있는지 등을 의미한다. 반면 종교적 영적 안녕감은 절대자와의 관계로 신이 나를 사랑하고 돌봐주시심을 믿는, 절대자와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영적 안녕감은 종교적 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며(허현나, 2002), 심리적 적응에도 도움을 준다(박혜원, 2013). 즉 영적 안녕감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정감과 만족감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영적 안녕감의 하위변인인 종교적 안녕감과 실존적 안녕감으로 구분한 연구에 의하면(조수환, 2008), 종교적 안녕감 및 실존적 안녕감과 자아정체감 관계에서 생의 의미에 각각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만성질환자와 심층면접을 한 Unantenne(2013) 등의 연구에서도, 영성은 희망과 자기 조절 능력을 연계 하여 만성질환에 대응하는 힘을 갖게 함으로써 치료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므로 영적 안녕감은 절대자를 신뢰하고 긍정적이며 의미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이며, 안녕감을 저해하는 곤란한 상황이나 역경이 주어져도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적인 태도의 원천으로 작용한다.

3. 영적 안녕감의 성경 인물 사례

여기서는 성경 인물을 신노년 세대 개념을 적용하기 보다는 '상실, 저하, 의존' 등 기존 노인 세대의 이미지와는 다른 '활동, 성취, 생성감의 발현'이라는 신노년의 핵심적인 특징에 부합된 갈렙과 드보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갈렙

출애굽 1세대인 갈렙은 40여년의 광야생활을 거쳐 어느덧 노년이 되었다. 성경에는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다수인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으로 언급되어 있지만 갈렙의 믿음의 보고는 위축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도하고 있다.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오히려 물러서지 않고 담대히 응수한 쪽은 여호수아보다는 갈렙이었다(민 14:7-9). 이후 갈렙은 여호수아를 극진히 섬김으로써 여전히 자신을 단련하여 85세라는 고령의 나이임에도 이스라엘의 혼이 깃든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는 영적인 기개를 보여주었다. 갈렙은 “여호와께서 후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와 말씀하신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수 14:12)라는 고백을 통해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영적 안녕감의 면모를 보여준다. 갈렙은 생의 의미있는 종결(nice ending) 과업인 가나안을 정복하는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한다. 그는 노년에도 청년의 열정을 잃지 않고 인생의 주어진 목표를 향해 과감히 도전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전쟁으로 지쳐서 현실에 안주하려고 할 때 갈렙은 요새이며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있는 힘센 아낙 자손들과 한판 승부를 감행한 것이다. 갈렙의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믿음에 맞서는 신실한 한 줄기의 빛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갈렙은 보다 나은 성취를 위해 자신의 에너지를 집중 투자하여 전쟁으로 소진한 이스라엘 백성보다 한발 앞서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갈렙은 생물학적 연령에 매이지 않고 중년기의 생성감을 심분발휘하여 노년에 기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헤브론 산지 점령의 과업을 성취하여 함께 나눔으로써 공동체에 기여했다. 노년의 갈렙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영적 안녕감을 실현한 인물이었다.

2) 드보라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는 이삭과의 결혼을 곧바로 결심한 리브가와 함께 익숙한 밭담아람을 뒤로하고 길을 떠나는 장면이 창세기 24장 59절에 기록되어 있다. 그후 ‘벤엘’로 돌아오는(창 35:1-15) 야곱의 여정에서 드보라 죽음의 기사가 짙막하게 삽입된 것은 이야기의 흐름상 어색하기까지 하다. 드보라의 삶의 여정과 야곱에게는 드보라가 어떤 대상이었는지 과감하게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저 드보라의 죽음은 세겜에서 헤브론에 이르는 야곱의 귀환 여정을 보도하는 본문 가운데 삽입되어 있는 정도이다. 드보라의 누락된 삶의 공백을 메움에 있어서 가장 개연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갈취하여 밭담아람으로 급히 도주했을 때 야곱의 모친 리브가가 자신의 유모인 드보라에게 야곱을 부탁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드보라가 묻힌 알론바곳은 벤엘의 또 다른 이름이다. 즉 벤엘은 야곱이 제단을 쌓았고, 돌기둥을 세웠던 곳으로 드보라가 묻힌 곳이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는 아마 야

곱의 출생을 돕는 산파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드보라는 야곱에게 있어서 어머니 리브가와 연결된 중간대상(transitional object)이었을 것이다. 즉 야곱에게 드보라는 상실된 어머니와의 관계를 매개하는 존재로서, 머나먼 하란에서 타향살이를 하는 야곱을 따뜻하게 받아주는 모성적인 환경을 제공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창세기에는 다섯 명의 여인들의 장사지냄에 대한 보도가 나타나는데 드보라를 제외하고 모두 족장들의 아내였다(사라-23:19, 49:31, 라헬-35:19, 리브가와 레아-49:31). 여기서 드보라의 죽음은 족장의 아내 죽음만큼이나 큰 비중이 있음을 암시받을 수 있다. 또한 드보라의 죽음 보도는 35장 1-15절 단락의 중심에 배치됨으로써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드보라의 죽음 보도는 전반부(1-7)와 후반부(9-15)를 연결하면서 전환점을 이룬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개명은 옛 사람이 죽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거듭남을 의미하는데, 죽음과 다시 태어남의 본문의 흐름이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의 죽음과 장사지냄에서 극적인 전환을 이룬다. 유모로서의 드보라는 태어남과 돌봄을 담지하고 있고 그녀의 죽음은 옛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의미한다. 즉 그녀의 장사지냄은 죽음과 새로운 시작의 역설이 있다(하경택, 2018). 드보라가 언제부터 야곱과 동행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야곱이 애곡의 무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드보라는 자신의 삶이 녹아있는 하란을 다시 떠나 베엘로 돌아가는 야곱의 일행에 합류했던 것 같다. 이런 드보라의 행동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이주를 감행한 아브라함의 신앙보다 더 후한 점수를 주어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 드보라 역시 노령의 나이로 베엘을 목적지로 삼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동해 갔기 때문이다.

야곱은 베엘로 올라가기 전에 정결과 이방 신앙들을 매장함으로써 야곱이라는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남에 있어 창세기 기자의 드보라의 기사는 단순한 죽음 보도가 아닌, 야곱의 정체성을 변모시킨 주역이라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환기시키고 있으며, 그녀가 생을 마감하기까지 생성감(generativity)을 발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야곱이 이방신들의 제거를 단행하는 결단적인 행동을 함에 있어서 드보라는 믿음의 모체 역할을 해 주었을 것이다. 드보라를 주인공으로 하는 인생단막극은 그녀의 죽음으로 영적 안녕감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4. 베이비붐(신노년) 세대와 기독교상담

그동안 한국교회는 베이비붐 세대(1955년-1974년)의 인구 증가의 영향으로 몰려오는 사람들을 수용하기에 분주했다. 그러나 생애주기 소비가 정점에 이르는 45세~49세

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점인 인구절벽(the demographic cliff)은 저출산과 사회 고령화가 맞물린 모양으로 더욱 큰 변화를 예고한다. 현재 한국교회는 교회의 성장 동력이 소실됨으로써 베이비붐 세대를 주축으로 이루어진 교회 건물의 건축과 조직 규모는 한계에 이르고 있다. 과거 한국경제의 압축 성장처럼, 한국교회도 압축성장 하였는바, 인구 증가 시기와 맞물려 양적 교회 성장이 이루어졌었다. 그러나 저출산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교회는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교회조직을 유지함에 있어서 고령화된 교인들의 재정 감소는 목양적 부담으로 연결되어 어려움이 가중된다. 은퇴에 진입한 베이비붐 세대들의 양적 증가를 교회와 기독교 상담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들은 사회적 관계의 약화로 사회적 고립감이나 외로움이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교회는 사회적 접촉과 상호작용의 기회를 높이는 사회적 관계망의 이음새로써 다양한 사회적 지지 및 영적 지지를 제공하는 안아주는 환경(holding environment)이 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베이비붐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수준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통해 불안과 우울이 감소되어(Barton, Effing, & Cafarella, 2015) 주관적, 영적 안녕감을 이루는 삶의 질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독교는 우리 삶에 일차적 애착대상으로서의 '안전기지(the secure base)'를 이룬다. 애착대상의 존재는 인식처로서 세상 밖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안전기지의 역할을 한다. 역으로 충분히 안전한 기지가 없으면 인간은 불안을 느끼게 되는데(Bowlby, 1988), 사회적 역할의 변화를 겪는 베이비붐 세대는 그 사회 주류에서 점차적으로 밀려나게 됨으로써 불안에 처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연령에 따른 삶의 시간표에 의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상실은 심리적 노화를 가져온다. 사회적 배제는 존재가치에 대한 의문과 함께 베이비붐 세대의 지위를 하락시켜 삶의 질은 낮아질 수 있다.

셋째,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다양한 종교 활동이 제공되어야 한다. 노년기의 종교 성과 정신건강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노년기 종교 활동은 주관적 안녕감을 강화하고, 노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만족도를 높여주며(김수정, 2006; 김철진, 2011; 설경옥 외, 2012; 안준희, 2010), 우울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저하시킨다. 따라서 노년기에 지속적인 종교 활동을 유지하는 노인의 정신건강 수준은 종교 활동을 중단하거나 하지 않는 노인보다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종교 활동이 주관적인 안녕감을 강화하고, 우울증과 심리적인 디스트레

스(distress)를 저하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김정진, 2017; 전해정, 2004). 또한 김경숙 등(2008)의 연구에서도 교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보다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자원과 전략들이 능동적이며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종교활동은 노년기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 중의 하나인데, 종교활동 참여는 '사회적 관계'를 제공하여 관계에서의 소외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년기 행복을 저해하는 가장 주된 요인 중의 하나는 소외와 고독이 꼽히고 있다(장숙희 외, 2008). 가족관계를 위시하여 친구, 이웃들과의 관계는 소외와 고독을 덜어주며, 관계의 대상과 관계의 질이 어떠한지에 따라 행복감의 정도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정우진, 김태성, 2015). 다시 말해, 교회활동참여는 베이비붐세대의 고립을 줄이고, 예배의 참여와 교회봉사 등을 통한 소속감과 자기 효능감이 유지됨으로 주관적 안녕감과 영적 안녕감이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교회가 베이비붐 세대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삶의 통합, 자기효능감, 소속감, 생활만족감, 여가생활 등의 심리적, 영적 웰빙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것이다. 소그룹기도모임, 교육, 상담, 여가 등과 같은 베이비붐 세대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베이비붐 세대는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어 숨가쁘게 살아왔으나 이제 은퇴와 나이 들음으로 인해 정서적 상실감과 공허감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들의 파편화된 내러티브가 하나님의 소망적인 미래의 내러티브로 새롭게 재저작(re-authoring)되어 건강한 자기애와 조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김미경, 2015). 하나님 중심의 소망적인 내러티브가 가능한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마음(mind)과 영혼(spirit 또는 soul)의 존재이기 때문이다(안경승, 2021).

이와 같은 기독교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신노년 담론은 미래지향적이고 대안적인 담론으로 제시되어 전생애에 걸친 발달과 성찰을 중요시하고, 중년의 연장이 아닌 노년기만의 현실과 실재를 인식하며 새로운 의미를 찾는 기독교적 '의식적 노년(conscious aging)' 담론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Moody, 2005). 그동안 신노년 담론은 심리적 안녕감 위주로 노년 패러다임의 재편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노인들의 영적 안녕감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적인 노인들에 대해서도 배제의 담론으로 작용되어 왔다. 무엇보다 기독교가 노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그동안 형성되어 온 활동적 노화이론에서 출발하여 성공적 노화, 생산적 노화 개념에 더하여 영적 안녕감을 강화하는 기독교 상담적인 담론 구성이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III. 닫는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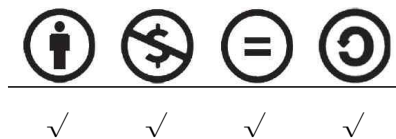
베이비부머가 새로운 노년층으로 유입되고 있는 현대에서, 영적 안녕감을 간과한 활동적 노화, 성공적 노화 담론만으로는 베이비부머의 인생 각본으로 설명력이 부족하다. 과거 노년의 패러다임은 '상실과 저하'와 '의존적 시기'로서 노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면 새로운 신노년 패러다임은 노년기의 긍정적인 면인 "활동적인 노화(active aging)," "성공적인 노화(successful aging)," 그리고 "생산적인 노화(productive aging)"를 만족스러운 삶(Baars, Dannefer, Phillipson, & Walker, 2016)의 상태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2000년대 이후 노년기에 대한 인생 시나리오에서 활동적 노화, 성공적 노화, 생산적 노화 등 이른바 '신노년' 담론이 충분한 논의와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지배적 노년기 담론으로 수용되어 왔다. 이에 우리 사회의 지배적 가치가 된 성공과 능력, 특히 경제적 성공에 대한 무비판적인 맹목적 추구를 노년기까지 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성찰이 필요하다(최희경, 2010). 특히 신노년기는 내적 성찰과 더불어 종교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할 때이다.

경제성장과 교회성장의 주역으로 살아온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를 위해, 이제 기독교적인 새로운 노년기 모습을 구현하기 위한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과 논의가 시도되어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베이비부머의 구체적 욕구와 생활상의 경험을 반영하는 대안적인 담론과, 불평등과 차별 속에서 배제된 침묵하는 '소수자' 노인들에 대해서도 기독교 상담과 방안이 활발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고령 노인세대와는 달리 '소수자' 노인으로서 여성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시설입소 노인, 농어촌과 소도시지역 노인, 무자녀 및 독거노인 등 다양한 삶의 조건에 있는 노인들도 자신의 경험과 욕구를 드러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독교적인 장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베이비붐 세대의 신노년에 대한 기독교 상담적인 담론은 존중과 통합의 방향으로 지향되어야 할 것이다. 노년기 담론 속에 내포되어 온 신노년과 구노년, 평범한 노인과 특별한 노인, 활동적 노인과 유리된 노인, 생산적 노인과 부담으로서의 노인이라는 이분법적 이미지는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적 노화 기준으로,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해서 배제되어 오히려 사회적 부담으로서의 존재가 더욱 부각되어 온 점에 대해서 기독교가 먼저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더불어 노인인구 20% 시대를 눈앞에 둔 현재, 기독교 관점에서 신노년기 담론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다수 노인의 현실과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노년기 패러다임이 수립되어야 한다. 건강하고 성공적이며 사회에 기여하는 노인이 지향하는 활동과 참여의 담론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나아가 향후 노인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학제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은퇴 후의 삶은 은퇴 이전의 삶만큼이나 길어졌기 때문에, 미래의 노인들은 은퇴 후 제 2의 삶을 계획하는 것이 필수적인 발달과업이 되었다(이윤희, 2023). 베이비붐 세대는 길어진 인생의 오후가 행복한 노후가 될 수 있도록 영적 안녕감이 넘치는 생애를 설계해야 한다.

노년기 종교 활동 참여의 증가가 노화를 수용하고 인생을 통합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므로 기독교는 문화적, 규범적으로 편협한 노인 담론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집단의 욕구와 이들에 대한 보호를 실현할 수 있는 골격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삶의 동향이 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와 이들이 영적 안녕감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독교 상담적인 적절한 개입들과 연계된 이론적, 실증적 연구들이 뒷받침되기를 기대한다.

- 논문 투고일: 2023년 10월 11일
- 논문 수정일: 2023년 11월 03일
- 게재 확정일: 2023년 11월 09일



【참고문헌】

- 공경배, 모선희 (2023). 베이비부머 세대의 평생교육 참여 동기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3(7), 465- 477. <http://dx.doi.org/10.5392/JKCA.2023.23.07.465>
- 김경숙, 문제우, 박재산 (2008). 우리나라 노인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분석: 경로당 및 교회 활동 참여자를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23, 105-132.
- 김경호, 김지훈 (2009). 한국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요인의 구조분석. **한국노년학**, 29(1), 71-87.
- 김경희, 정혜정 (2017). 베이비부머 은퇴 남성의 내러티브 정체성 탐구: 고학력 중산층 은퇴자를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5(4), 839-862. <http://dx.doi.org/10.21479/kaft.2017.25.4.839>
- 김동배 (2008).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0(1), 211-231. <http://dx.doi.org/10.20970/kasw.2008.60.1.009>
- 김동배 (2015). **제 3의 인생 설계**. 서울. 도서출판 소야.
- 김미경 (2015).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기독교 상담적 돌봄: 이야기 치료를 중심으로. **복음과 상담**, 23(2), 41-68. <http://dx.doi.org/10.17841/jocag201523.2.41>
- 김미라 (2022). 뉴시니어의 여가유능감이 심리적 웰빙과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관광레저연구**, 34, 133-147.
- 김미혜, 신경림 (2005).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5(2), 35-52.
- 김수정 (2006). 노인의 종교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분석: 사회적지지 및 실존적 건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3, 29-50.
- 김옥희, 서연희 (2015). 전기 베이비부머의 노화 인식과 성공적 노화 준비에 관한 연구: 저소득 무배우자 남성을 중심으로. **가족복지학**, 20(1), 87-111. <http://dx.doi.org/10.13049/kfwa.2015.20.1.87>
- 김정진 (2017). 베이비붐 세대의 정신건강과 교회의 역할. **생명연구**, 43, 173-222.
- 김정희 (2003). 부부갈등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母的 영적 안녕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철진 (2011). 종교생활의 효과가 노인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치행정학보**,

- 25(1), 283-303. <http://dx.doi.org/10.18398/kjlgas.2011.25.1.283>
- 김희경 (2012).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영향요인. **한국노년학**, 32(3), 819-834.
- 문정화, 김수진, 성기욱 (2023). 활동적 노화요인이 노인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이용노인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20(1), 141-170. <http://dx.doi.org/10.38082/SWPR.2023.20.01.141>
- 박경례, 박재연 (2023).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후 삶의 경험에 관한 질적메타분석. **한국노년학연구**, 32(2), 137-169.
- 박미려, 박미석 (2017). 시간적 차원에서 본 베이비붐 세대의 행복수준 연구. 가정과 삶의 질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27-227.
- 박영신, 전성숙, 양환옥, 조상현, 이은석 (2021). 한국 노인이 지각한 행복의 의미와 행복에 영향을 준 사람의 분석. **교육문화연구**, 27(5), 673-705. <http://dx.doi.org/10.24159/joec.2021.27.5.673>
- 박종한, 김한곤 (2009).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95-111.
- 박혜원 (2013). 노인의 영적 안녕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변미리, 민보경, 박민진 (2017). 서울형 행복지표 구축과 제도화 방안. 서울: 서울연구원.
- 서경현, 정성진, 구지현 (2005). 대학생의 영적 안녕과 생활 스트레스, 우울 및 자아존중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및심리치료**, 17(4), 1077-1095.
- 설경옥, 박지은, 박선영 (2012). 종교성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메타분석: 국내학회지 게재논문(1995-2011)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3), 617-642.
- 성혜영, 조희선 (2006). Rowe와 Kahn의 구성요소를 활용한 성공적 노화모델. **한국노년학**, 26(1), 105-123.
- 신경아, 한미정 (2013). 뉴시니어로서의 베이비붐세대 은퇴 후 삶에 대한 지향과 성공적인 적응을 위한 콘텐츠 수요에 관한 연구. **미디어, 젠더 & 문화**, 25, 113-144.
- 신계수, 조성숙 (2011). 베이비붐 세대의 직업만족도와 경제적 은퇴준비 실태 분석. **한국엔터테인먼트 산업학회논문지**, 5(4), 41-50. <http://dx.doi.org/10.21184/jkeia.2011.09.5.3.41>

- 신학진, 전상남 (2009).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화요인과 주관적 건강의 영향. **노인 복지연구**, 46, 29-51.
- 안경승 (2021). 자기중심의 인간이해에서 영혼을 복원하기. **복음과 상담**, 29(2), 163-195. <http://dx.doi.org/10.17841/jocag.2021.29.2.163>
- 안준희 (2010). 노인의 종교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낙관성과 우울의 매개 효과 분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5, 203-233.
- 윤매옥 (2009).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이 성인의 죽음 불안, 영적 안녕 및 삶의 의미에 미치는 효과.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0(4), 513-521.
- 이경원 (2021). 베이비부머의 성공적 노화 척도 타당화 연구: 라쉬모형 적용. **노인복지연구**, 76(2), 61-90. <http://dx.doi.org/10.21194/kjgsw.76.2.202106.61>
- 이계윤, 송현종 (2013). 대학생들의 운동참여가 심리적 안녕감, 대학생활만족, 행복 지수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52(2), 95-105.
- 이금룡 (2016). 사회참여 관점에서의 생애설계. 한국노년교육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21-33.
- 이윤희, 신민영 (2023). 신노년의 자기계발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에서 생성감의 매개효과. **발달지원연구**, 12(2), 67-82. <http://dx.doi.org/10.22839/adp.2023.12.2.67>
- 이창수, 김현국, 정연수 (2013). Rowe와 Kahn의 성공적 노화 모델에 대한 비평과 향후 과제. **한국웰니스학회지**, 8(4), 1-11.
- 장숙희, 김창숙, 김미란 (2008). 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동서간호학연구지**, 14(2), 39-46.
- 전병주, 한혜숙 (2019).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 Rowe & Kahn 이론을 적용하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10), 69-83. <http://dx.doi.org/10.5392/JKCA.2019.19.10.069>
- 전은희, 주용국 (2014).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척도 개발. **평생학습사회**, 10(3), 145-180. <http://dx.doi.org/10.26857/JLLS.2014.08.10.3.145>
- 전혜정 (2004). 노년기 종교활동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5, 169-186.
- 정경희, 윤지은 (2010). 한국노인의 생산활동 참여실태 및 경제적 가치. **보건복지포럼**, 161, 48-57.
- 정순돌 (2007).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인식 비교연구. **한국**

- 노년학**, 27(4), 829-845.
- 정순돌, 서송주, 박효진 (2013). 베이비부머의 여가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 주관적 신체건강과 주관적 정신건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여가학연구**, 11(2), 75-99. <http://dx.doi.org/10.22879/slos.2013.11.2.75>
- 정여진, 유나영, 김비아, 신현정, 정영숙 (2014). 한국인의 성공적 노화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노년학**, 34(4), 781-797.
- 정우진, 김태성 (2015). 가족내 상호지지와 가족외 지지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50, 41-68. <http://dx.doi.org/10.16975/kjfs.2015..50.002>
- 조영태 (2015). **정해진 미래**. 서울: 북스톤.
- 지혜은, 박경숙 (2018). 성공적 노화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성별 비교. **사회보장연구**, 34(2), 209-237.
- 최유진, 차미경 (2019). 노인의 공공도서관 이용 가치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0(1), 121-144.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9.30.1.121>
- 최희경 (2010). 신노년 정책 담론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활동적 노화, 성공적 노화, 생산적 노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17(3), 41-65. <http://dx.doi.org/10.17000/kspr.17.3.201012.41>
- 통계청 (2022). 2022년 고령자통계.
- 하경택 (2018). 뱀엘에서의 야곱과 드보라의 죽음. **신학연구**, 73, 163-195. <http://dx.doi.org/10.46334/TS.2018.12.73.163>
- 한경혜, 최희진 (2018). 도시노인의 사회적 교류, 신체활동과 일상적 행복감의 관련성, **한국노년학회지**, 38(4), 1083-1105.
- 한송이, 윤순녕 (2015).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화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6(4), 372-379. <http://dx.doi.org/10.12799/jkacn.2015.26.4.372>
- 한창묵 (2019). 신중년의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요인분석. **국정관리연구**, 14(2), 37-62. <http://dx.doi.org/10.16973/jgs.2019.14.2.002>
- 한혜경 (2016). 베이비붐 세대 남성 은퇴자의 가족생활 만족/불만족 근거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미래사회복지연구**, 7(1), 5-35.
- 허현나 (2002). 종교적 지향성과 영성적 안녕 및 심리적 안녕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영준, 이정훈 (2014). 은퇴베이비부머의 영적 안녕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45, 95-119. <http://dx.doi.org/10.16975/kjfs.w.2014..45.004>
- 홍현방, 최혜경 (2003). 성공적인 노화 정의를 위한 문헌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145-154.
- Baars, J., Dannefer, D., Phillipson, C., & Walker, A. (Eds.). (2006). *Aging, globalization and inequality: The new critical gerontology*. New York: Baywood.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Clinical applications of attachment theory*. London: Routledge.
- Burkhardt, M. A. (1989). Spirituality an analysis of the concept. *Holistic Nursing Practice*, 3(3), 69-77. <http://dx.doi.org/10.1097/00004650-198905000-00011>
- Chandler, C. K., Holden, J. M., & Kolander, C. A. (1992). Counseling for spiritual wellness: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1(2), 168-175. <https://doi.org/10.1002/j.1556-6676.1992.tb02193.x>
- Cohen, D., & Gunz, A. (2002). As seen by the other...: Perspectives on the self in the memories and emotional perceptions of Easterners and Westerners. *Psychological Science*, 13, 55-59. <https://doi.org/10.1111/1467-9280.00409>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Diener, E. (199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2), 103-157. <https://doi.org/10.1007/BF01207052>
- Diener, E., & Suh, E. M. (Eds.). (2000).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Cambridge, MA: The MIT Press.
- Ellison, C. (1983). Spiritual well-being: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Psychology & Theology*, 11(4), 330-334. <https://doi.org/10.1177/002202218301100403>

doi.org/10.1177/009164718301100406

- Fish, S., & Shelly, J. A. (1983). *Spiritual care: the nurse's role*.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 Holstein, M. B., & Minkler, M. (2003). Self, society, and the "new gerontology". *The Gerontologist*, 43(6), 787-796. <https://doi.org/10.1093/geront/43.6.787>
- Kitayama, S., & Park, H. (2007). Cultural shaping of self, emotion, and well-being: How does it work? *Social &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1(1), 202-222. <https://doi.org/10.1111/j.1751-9004.2007.00016.x>
- Minkler, M., & Fadem, P. (2002). Successful aging: A disability perspective. *Journal of Disability Policy Studies*, 12(4), 229-235. <https://doi.org/10.1177/104420730201200402>
- Moody, H. R. (2005). From successful aging to conscious aging. In M. L. Wykle, R. J. Whitehouse, & D. L. Morris (Eds.) *Successful aging through the life span: Intergenerational issues in health*, 55-68.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Paloutzian, R., & Ellison, C. (1982). Loneliness, spiritual well-being and the quality of life. In L. Peplau, & D. Perlman (Eds), *Loneliness: A source 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224 -237. New York: Wiley.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https://doi.org/10.1037/0022-3514.57.6.1069>
- Sadler, W. A. (2003). **서드 에이지, 마흔 이후 30년** (김경숙 역, *The third age*). 서울: 사이. (원전 2000 출판).
- Sharmila, K. (2020). Role of happiness in health of elderly. *Indian Journal of Gerontology*, 34(4), 544-552.
- Suh, E. M., & Choi, S. (2018). Predictors of subjective well-being across cultures. In E. Diener, S. Oishi, & L. Tay (Eds.). *Handbook of*

well-being. Salt Lake City, UT: DEF Publishers.

Unantenne, N., Warren, N., Canaway, R., & Manderson, L. (2013). The strength to cope: Spirituality and faith in chronic disease.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52(4), [https://doi.org /1147-116110.1007/s10943-011-9554-9](https://doi.org/1147-116110.1007/s10943-011-9554-9)

【Abstract】

Christian Counseling Discourse for the Happiness of the Baby Boom (New Older) Generation

Kim, Mi Kyung*

This study is a Christian counseling discourse for the happiness of the baby boomers (new older) generation. Today, most baby boomers are unable to prepare for their long old age. This is because of the support of elderly parents and the support of adult children who have not yet been employed due to difficulties in finding employment. The baby boomers are a group who have spent their middle ages physically healthy, have higher educational backgrounds than older generations, and have social experiences that demonstrate professional knowledge and generativity. However, most baby boomers are threatened with happiness(well-being), so Christian counseling needs to be sought for them. Therefore, this study will examine the subjective well-being and spiritual well-being closely related to the happiness of baby boomers. In addition, I would like to examine biblical figures who achieve self integrity by demonstrating generativity and lay the foundation for the Christian counseling discourse on new older. Until now, the discourse of the new older of the baby boomers had focused only on psychological well-being, so it did not reflect spiritual well-being, and it was also a discourse that excluded the non-Christian elderly. Above all, Christian counseling discourse that strengthens spiritual well-being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Christianity can contribute to a happy life in old age.

Key words: baby boomers generation, happiness, subjective well-being, spiritual well-being, generativity

* Seoul Hanyoung University,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Counseling
Psychology / Associate Professor